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26.(화) 11:00,
(지면) 2024. 11. 27.(수) 조간

배포 2024. 11. 26.(화) 06:00

참치연승어선 원양어선원 확보를 위해 노·사·정 합의

- ①한국인 선원 우선 고용 보장, ②참치연승어선원 월 고정급 인상,
③한국인 선원 양성·고용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에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7일(수)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전국 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 해기海技 전승傳承, 선원이 갖추어야 할 기술(해기)을 후대에 전함(전승)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고자 원양 노·사가 10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민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원양 참치연승업종에 대해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여 원양어선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참치연승어선원 임금 인상, 원양어선원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노·사 양측의 상생을 위한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가 잘 이행되어 원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44-200-5360)
		담당자	사무관	양동곤 (044-200-5361)